

종도와의 약속 실천 기대

작년 3월 29일 불교계의 진보적인 젊은 불자들이 구성된 8개의 모임이 뜻을 같이한 <법종단개혁추진회>의 발족은 한국불교의 역사상 적지않은 변혁을 가져다 주었다.

둘째, 보건의대, 개혁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종단으로서 적지않은 회생을 치렀고 국민으로부터는 외면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셋째, 총무원 청사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과 파괴현장을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을 때, 대외적으로 비친 청정승단의 모습은 여지없이 일그러졌으며, 신도들의 신심에 상처를 주었다.

둘째, 한국불교 역사상 종정이 불신임을 받고 또 총무원장이 종정계를 받고 종단 밖으로 밀려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며, 해종행위자 징계 과정에서 문중이나 계파 혹은 은 어용성에 의하여 형평을 일부 잃었다는 후문도 만만치 않았다.

셋째, 몇몇 분사를 비롯한 중요 사찰 주지 내지 새로 구성된 총무원(직능 및 일부 지역)이 개혁의 일부 주도자들에 의하여 타당성을 잃고 선임되었다는 점과 역대로 종단행정의 언저리에서 요역을 담당하던 스님들이 아직도 종횡무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개혁의지에 의문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세인의 눈길을 쫓아 리게 한 점은 아직도 불교집안에 깨끗한 민주의식이 부족한 탓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처럼 반성해야 할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개혁적 성과도 많다. 아직 실용성은 장담할 수

없지만 교구총회의 구성과 총무원장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는 발전된 승단의 민주주의를 보여 주는 것이라 본다.

또 정화 이후의 3대사업으로 추진해온 교육·포교·역경 가운데 교육원과 포교원이 발원으로 격상되고 예산까지 별도로 편성된 점은 역사에 남을 개혁불사라고 평가된다.

개혁완성의 숙제를 계승하여 출범한 송원주 총무원장팀은 과거 어느 팀보다 지지와 정통성을 지녔다고 본다. 비록 전 승려가 참여한 직접 선거는 아니었지만 선거인단의 공정한 선거로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원에서 주관한 승려재교육의 첫단계로서 본사 주지·교계 중진스님들의 연수교육을 비롯하여 각종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관자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위에서부터 따라주고 협력하는 변화된 의식은 조

계종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사회복지법인이 인가되어 종생의 곁으로 다가선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보살행을 실현하려는 종단의 의지라 여겨진다. 실다운 사회사업으로 발전시킬 기대한다.

바라건대 송원장팀은 개혁의 정신을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용단을 갖고 종도와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바란다. 불교계의 숙원사업인 수도권 불교종합병원의 설립, 사찰운영의 공영화 추진, 화합된 종단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사면복권도 빨리 실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조계종이 장단기 발전계획과 추진현황을 개혁 1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확연히 제시해 준다면 종도와 국민은 개혁의지를 적극적으로 따르고 지지할 것이다.

사설



◇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장기 집권을 막고 진정한 개혁을 이루기위해 사부대중은 하나로 일어났다. 지난해 3월 26일 구중법회로 시작되어 4월 10일 전국 승려대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 조계종사태는 한국불교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열린마당

조계종 개혁 1년

열린마당

3월 29일, 법안과 4, 10 승려대회를 거쳐 조계종 개혁 종단의 집행부가 들어선지 어언 1년이 흘렀다. 1년을 되돌아 볼 때 잘못된 점도 눈에 띄어나. 전체적으로 매우 잘된 불사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의 종단 집행부와 전 종도들이 1년전 가지고 있던 개혁의지가 변질되거나 퇴보되어 있어 행정은 물론 개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1주년을 맞는 지금 점검해 볼 필요가

지선 스님



사람이 종권을 잡아도 자기는 계속 대접받고 싶겠다는 생각을 가진 종단 인사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으나...

또한 부분적 작은 잘못을 가지고 개혁 전체를 평가하고 다시 뒤집고 싶은 사람들, 돈과 권력의 화신인 것처럼 그 맛에 익숙된 사람들이나 세속의 욕망을 집집에 와서 달성 하려고 바둥대는 사람들, 문중 파벌 의식과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어 있는 사람 등

작년의 조계사 사태는 불교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정말 불자로서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의아스러울 정도의 무도한 세력과, 거기에 선봉리 힘을 빌려준 정치권력에 맞선 사부대중의 처절하지만 끈질긴 저항이 거둔 승리는 불교사에 혁명적인 한 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뒤의 불교사는 분명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다. 대외적인 관계에서

성태용 교수



스님들과 재가자들의 위상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다. 사부대중이 진정한 사부대중으로 서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혁명적인 사태 뒤에 오는 지나친 기대감과 그에 대한 반작용이 개혁의 과정에 작용하여 조금은 불안한 체제로 개혁을 지속하는 종단이 출범한 느낌도 있다. 그리고 혁명적 사태가 취할 수 밖에

화합통해 정법향한 불사 재출발 종권 이해관계 구태답습 아쉬워

있을 것이다. 지난해의 개혁불사가 법과 제도와 사람을 바꾸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 특히 사람 문제(인적 청산)는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식 개혁이 시작되지 못하고 서의현 집행부를 퇴진시키기 위한 목적 하나에만 전 종도가 하나로 결집되었다. 그들이 퇴진한 뒤 개인과 문중 및 단체의 요구하

는 바가 각각 달라 역시 종권과 이해관계로 다시 구태의연한 자세들이 도처에서 보이고 있으니 무척 염려가 된다. 종단 화합차원에서 웬만하면 수용했던 작년 개혁회의 결성부터가 잘못된 시작일까. 아니면 개혁 기간을 짧게 잡고 결박중에 가까운 결여한 심정으로 무책임하게 일을 서둘러 마친 뒤 물러나움이 잘못된 것일까. 물러가 쉬어야 할 사람들과 서의현 체제를 운운시키면서 이득을 보았는가 하면 어떤

등... 이 모든 고민들을 다 같이 나의 일로 끌어안고 고민하는 의식이 결여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래서 개혁은 지금부터이다. 집행부가 개혁 소신을 가지고 정법으로 나가야 하고 전 종도는 올바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함께 따라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나 스스로를 반성하고 참회하며 고민하고 있다. <백양사 주지>

사찰 운영공개 제도화 추진 성과 비구니·재가불자 위상제고 필요

보다라도 잘못 해석된 호국불교의 이름 아래 정권과 국가를 혼동하던 불교인들의 의식이 바뀌었고, 이에 상응하여 그런 불교계를 안중에 두지 않던 정치권력의 태도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혁명적 승리의 힘을 입어 불교계는 한 단계 역사적 비약을 이룩하였다. 우선 그 개혁의 과정 자체가, 몇 사람이 움직이던 불교계를 대중의 뜻을 모아 움직이는 방향으로 전환시킨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그리고 사찰 운영의 공개 등을 제도화 한 것은 이상적인 교단의 형성을 통한 불교 발전에 꼭 필요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의 전제적인 성공 여부를 한마디로 논하려 하기 보다는 이러한 중요한 성과 등이 앞으로 불교계를 밝히는 힘으로 작용하도록 하려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일년의 개혁은 몇가지의 큰 문제를 남기고 있다. 우선 비구니

없었던 대중의 힘에 의한 초법적인 조치의 성과는, 승단으로 하여금 앞으로도 쉽게 그런 방식을 채택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낳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사부대중을 이상적인 제도 속에서 조직화하고 그 힘을 든든한 울타리로 삼아 이러한 불안 요소를 극복하여야 한다. 그 속에서 불교 중흥을 향한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건국대 철학과>

현대만평



박구원

개혁 1년...

개혁 1년 조계종의 변화

3·29 법안이 일어난 지 1년.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가 주도한 개혁세력에 의해 3선을 꿈꾸던 서의현 체제는 무너지고 4·10 승려대회를 거쳐 개혁회의가 들어섰다. 개혁회의는 종헌준법 제·개정을 비롯한 각 분야의 개혁을 추진했고, 송원주 총무원장을 수반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가 개혁의 완성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의식의 개혁이라든가 불교 자주화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가운데 조계종의 1년간의 변화를 짚어본다. 우선 조계종은 교육원·포교원의 독립법원화와 호계원의 신설 등으로 기구가 비대해졌다. 2월2일1처1소2부9국이 새로 늘어났고 따라서 예

종회의원 겸직 금지·교육체계 확립...신도 재적사찰 의무화

산도 지난 해보다 두배가량 늘었다. 그리고 종지를 구현하기 위한 참선수행 도량인 선원을 기초선원과 전문선원으로 구분하여 기초선원 이수자는 기본교육 이수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도록 했다. 한편 입법기구인 종회와 원로회의의 권한이 강화됐다. 특히 원로회의는 종정추대권과 중앙종회 해산제정권을 갖

고 있다. 종회 역시 의회기능 활성화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새롭게 교구총회가 신설, 교구내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의결기구로서 교구행정의 감독기관 역할을 한다. <사찰운영> 수입과 지출을 알기 힘들었던 사찰의 재정공개가 종연으로 명문화됐다. 주요 사찰들의 종무집행을 감독하고

삼보장재의 유출방지를 감독하기 위한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감사국 설치와 함께 각 사찰에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사찰운영 및 재정수입·지출 등을 공개하며, 신도회장과 부회장이 참여 사부대중에 의한 사찰운영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신도들은 의무적으로 하나

의 재적사찰을 등록하며 신도회에 가입해야 하고 1년에 한 번 교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조계종이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종회의원의 교구본사 주지 겸직금지과 승종진착을 위한 '선교육 후특도' 확립. 행정교육원을 거쳐 승가대학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비구(니)계를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재교육과 전문교육기관도 신설화시켰다.

바른 불교를 실천하는 東南佛敎新聞

깊은 산중의 수도승, 도시의 골목, 시골의 논두렁에서도 풀뿌리 불교는 살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東南佛敎新聞은 그러한 작은 것을 소중히 주워모아 바른 불교 실천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400만 부산경남 불자를 위한 지역 대변지로서 시방삼세 온누리에 부처님의 참된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1995년 3월 일

-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범천1동 719-4번지
- 대표전화 : (051) 643-3587
- 팩 스 : (051) 633-9137

동남불교신문 창간준비위원회
위원장 정기학 합장